



◇부산 사람 모두가 다 아는 불자인 김윤환·이경순 부부는 그들의 보금자리인 '영광도서'에서 지역 문화를 이끌어내는 중심 역할을 해내고 있다.

“서점은 책만 파는 곳이 아닙니다”

책장사 남편·사진가 아내 김윤환·이경순 씨의 삶

“영광도서 앞에서 만나요.”

부산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했을 익숙한 약속의 말이다. 1968년 5월 문을 열어 이제 부산시민 모두에게 서점의 대명사이자 반가운 사람과 만나는 장소가 되어버린 영광도서. 김윤환(53. 범명 현암)사장과 이경순(50. 범명 옥화장)실장, 이들 부부의 전생애가 담긴 곳이기도 하다.

만남의 명소된 영광도서

경남 함안의 시골 마을에서 '상경'에 버금가는 심정으로 부산으로 온 김 사장의 성실과 욕심으로 일군 영광도서. 34년의 역사와 함께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대형 서점조차 흉내 내지 못하는 문화공간인 '영광도서 사랑방'과 '영광갤러리'는 부산 문화를 이끄는 중심이 되고 있다. 70평 규모의 사랑방은 85회 째를 맞은 독서토론회 뿐만 아니라 불교합창단 연습실, 각종 행사장으로 무료 대여되고 있으며, 영광갤러리 또한 불교관련 전시를 비롯한 다양한 전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외에도 한문학당, 소설학당, 서예학당 등의 문화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이 모두가 눈앞의 이익보다는 고객들의 삶의 질까지 책

입지겠다는 김 사장의 경영 철학과 과감한 투자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문화공간으로서 서점의 활동반경을 점점 더 넓혀갈 것”이라는 김 사장은 “지역민들과 함께 삶의 희망을 일구어가는 ‘행복한 책방’을 만들고 싶다”고 말한다.

‘영광도서 같은 서점을 만드는 것’이 전국서점연합회 회원들의 꿈일 정도로 영광도서는 전국 서점가의 모범답안이 되고 있지만 김 사장의 꿈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문화공간 ‘사랑방’·‘갤러리’

“도서박물관을 세우고 싶다. 책을 기증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받아 줄 곳이 없어 버려지는 책들이 많다. 책은 문화이고 역사이며 정신세계를 이끄는 것인데 그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안타깝다”며 스님들의 소장 도서나 고서들을 모아 도서박물관을 만드는 것이 마지막 남은 꿈이라고 말한다.

이같은 김 사장 옆에는 언제나 부인 이경순 씨가 있다. 이 씨는 연꽃 사진을 찍는 사진작가다. 73년

결혼해 서점의 안주인으로 카운터부터 책 정리까지 서점의 크고 작은 일을 도맡았던 이 씨는, 서점이 자리를 잡자 연꽃 사진을 통해 내면을 관조하는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98년부터 서점 내 영광갤러리를 개관하고 관장을 맡고 있는 이 씨는 연꽃 사진을 찍는 작가들 사이에서 렌즈에 포착된 연꽃을 통해 진리의 세계를 형상화하는 안목이 남다르다는 평을 듣는다.

부인, 연꽃사진집 2권 펴내

5년 전 아들이 사진학과에 입학한 것을 계기로 시작된 이 실장의 사진 활동은 부처님을 향한 기도가 자수행이다. 이른 새벽, 사진기를 챙겨 들고 길을 나서는 구도여정을 통해 이미 <연옥(蓮玉의 담識)> <나도 조금은 연꽃을 닮고 싶다> 등 두 권의 사진집을 냈고 전시회도 성황리에 마쳤다. 사진작가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한 이 씨는 대학원에서 작품세계의 영역을 넓히고 있다. 깊이를 더하고 있는 부인의 작품 활동에 대해 남편은 “마치 신들린 사람 같다. 연꽃이 부른다며 새벽마다 연꽃을 찾아 나서는 아내를 보면 부처님에 대한 신심과 작가 정신에 놀랄 때가 많다”고 말한다.

영광갤러리 사무실에서 만난 이들 부부의 모습은 마치 알맞은 거리를 두고 사이좋게 서있는 나무 같았다. 서점 주인과 책을 사러왔던 손님으로 만나 부부가 된 두 사람은 각자의 영역에서 일가를 이루기

까지 간섭하지 않고 서로를 믿고 존중하는 최고의 동반자였다. 두 사람은 자신의 단점을 보완해 주는 동반자가 있었기에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었다고 서로 감사해 한다.

“아내 덕분에 자리를 빨리 잡았어요. 지금도 그렇

지만 그때도 워낙 활발하고 추진력이 있었거든요. 역할 분담이 잘됐다고 할까요?” 김 사장은 이런 아내의 역할을 내조라고 표현하지 않는다. 늘 ‘사업의 파트너’ 자리에 아내가 있었기 때문이다. 뛰어난 직관력과 실행력을 가진 아내는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신중한 남편에게 안정맞춤의 동반자였다.

두 사람은 사업에서 뿐 아니라 생활이나 수행에 있어서도 최고의 동반자이다. 108배를 함께 하고 경전 공부 모임에서 같이 공부하는 동반인 이들 부부는 성공한 서점 경영자, 이른바 사진작가이기 이전에 불자답게 사는 길을 찾게 해 준 영광도서에서 아름다운 회합을 꾸꾸고 있다.

글=천미희 기자 mhcheon@buddhopia.com
사진=고영매 기자



◇김윤환·이경순 부부는 인생의 동반자이자 수행의 동반자로서 참 불자의 길을 향해 갈 계획이다.